

가을.

와우청대

WOW CHEONGDAE

가을의 시작과 함께 피어 오르는 짙은 향기와
이 계절을 오롯이 담아낸 노오란 국화꽃잎처럼
성숙한 삶의 향기를 내재한 우리, 청대인



Support 24

학생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는
청주대학교 24가지 키워드

청인보 淸人譜

상해청상식품유한공사 대표이사 장창원 동문
'직지 2.0 라운드 테이블' 사회자 이두원 교수
자전거로 러시아 대륙 횡단한 배건주 학생

가을 들뜬처럼, 다양한 꿈들이 익어가는

교육의 장이 되겠습니다

고르고 좋은 땅 위에 뿌려진 씨앗이
물과 바람과 햇살을 만나 가지를 뻗고,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대학 또한 건강한 교육철학과 시스템,
아낌 없는 투자와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성장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땀 흘려 땅을 일구고, 농작물을 가꾸는
성실한 농부의 마음으로,
청주대학교는 학생의 소중한 꿈을 아끼고 보살피며
진정한 대학의 본질과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하는 가을 들뜬처럼,
학생의 다양한 꿈들이 익어가는
풍성한 교육의 장이 되겠습니다.





청대인, 직지의 가치를 계승하는 축제의 장에 서다

전 세계가 보존해야 할 세계기록유산,
직지의 세계화를 위해 청주지역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1377년 세상을 깨웠던 직지의 힘으로
청주시내 곳곳은 생동감 넘치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고,
경이로운 책의 벽과 거대한 건축물이 세워졌습니다.

강연과 음악, 전시와 놀이가 밤낮으로 이어진 가운데,
청대인의 재능과 열정은 축제의 현장에서 그 빛을 발휘했습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꼼꼼하게 기록하였으며,
직지가 탄생했던 고려시대의 저잣거리 풍경을 재현하고,
직지 놀이터를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축제의 현장에서
청대인은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일,
청주대학교는 그 아름다운 동행에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9월 1일부터 8일까지 청주 예술의전당 및 고인쇄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제1회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은 총 26만여 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새로운 지역축제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수준 높은 전시와 다채로운 볼거리 및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 이번 행사에서
우리대학 광고홍보학과와 영화학과, 신문방송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은 축제현장 곳곳에서 재능 기부 형태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축제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와우청대

Cheongju University Magazine
2016 AUTUMN VOL. 233

청주대학교 소식지 (와우청대)의 '와우(WOW)'는
'세계를 향한 창(Window of the World)'이라는 의미와 함께
청주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한 우암산의 또 다른 이름인
'와우산'과 청주대학교의 발전과 성장에 감탄하는 의성어
'와우(Wow)'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우청대

2016년 가을호(통권 233호)
발행일 2016년 10월 31일
발행인 정성봉
편집인 이상철
발행처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Tel. 043-229-8011)
2850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기획 및 디자인 ㈜꽃피는청춘 (Tel. 02-3142-7373)
촬영 이원재
취재 이은형
가격 4,000원

Contents

02 총장실에서 온 편지
04 CJU Focus 청주대, 2015 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 금액 전국 4위 외

진심眞心,
오직 학생을 향하다
08 Support 24 학생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는 청주대학교 24가지 키워드

몰입沒入,
진리를 탐구하다

17 Department Guide 한눈에 보는 청주대학교 특성화 및 융·복합 파워
18 Department Guide 7개 단과대학 및 2개 학부 소개
28 Entrance Guide 2017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 안내

명문名門,
이름을 남기다
32 WOW Alumni 세상의 울림이 되는 청주대학교 10만 동문들
34 청인보淸人譜 제1장 상해청상식품유한공사 대표이사 장장원 동문
36 청인보淸人譜 제2장 '직지 2.0 라운드 테이블' 사회자 이두원 신문방송학과 교수
38 청인보淸人譜 제3장 자전거로 러시아 대륙 횡단한 배건주 학생 (경영학과 3학년)

소통疏通,
오늘을 전하다
42 단신뉴스 청주대 박물관, '선비의 일상을 엿보다' 특별전 개최 외
44 인물뉴스 정초시 교수, 충북연구원장 연임 외
46 명사들과의 만남 이승훈 청주시장 명사특강 외

48 발전기금 안내 발전기금 및 후원의 집 안내

가을.



70년 역사와 구성원의 강건한 의지로 중부권 최고 명문 사립대학의 위상을 회복하겠습니다



청주대학교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
우리대학이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고 걱정이 앞섭니다만, 우리대학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대학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최우선 당면과제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해제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우수 대학의 반열에 올려놓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비록 시간이 짧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우리 청주대학교와 같이 교육적 기반이 잘 갖추어진 대학에서는 구성원들이 합심하면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대학이 지향하는 목표는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글로벌 중심 대학·특성화가 잘된 대학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과제를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명확한 중장기 대학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그것과 연계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학사구조 개편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융·복합 교과과정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실험, 실습 등 실무 기본능력을 강화하며 산학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대학은 지난 10여 년간 교육환경 현대화와 개선을 위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왔고, 앞으로도 이공대학 확충과 리모델링, 실험실실습실 확충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수에 대한 평가방법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학술연구 논문 위주의 일률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수업과 산학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평가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사지원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들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모든 구성원이 합심하면 충분히 이룰 수 있고 그 성과도 빨리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을 아우르기 위해 원활한 소통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루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성원 여러분!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해냄으로써 우리 청주대학교를 '학생이 다니고 싶은 대학,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대학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나아가갈 방향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꺼이 동참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거듭된 실패로 자신감이 결여되고 조직 분위기가 침체되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70년 가까운 역사와 전통에서 비롯된 저력이 있고, 수많은 고비마다 슬기롭게 역경을 헤쳐온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빛나는 역사와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야 할 역사적 소명을 감당하여 청주대학교를 길이 발전시키겠다는 우리 구성원들의 강건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대학은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중부권 최고의 명문 사립대학이라는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의 도시 청주'의 자랑스러운 그 위상을 되찾아 다시금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밝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구성원 모두가 뜻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한데 합쳐 힘차게 전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주대학교 총장 정성봉

학생을 위한 장학금의 폭을 넓히다

청주대, 2015 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 금액 전국 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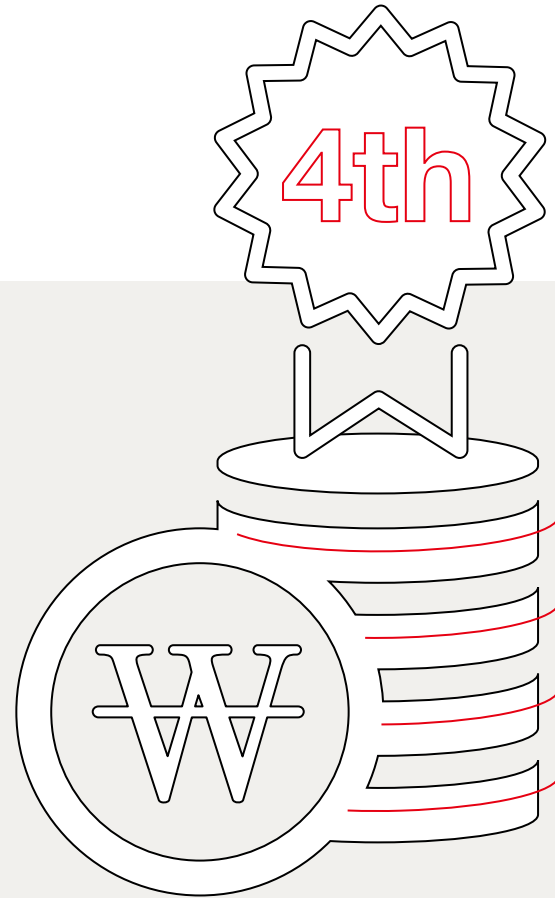
우리대학의 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 금액이 전국 대학 중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금 수입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전국 6위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지난해 재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280억 원과 교내 장학금 200억 원 등 총 494억1천7백여 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는 1인당 410만7천8백 원으로 전국 재학생 5,000명 이상 규모의 113개 대학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금액이며, 2014년 학생 1인당 장학금 395만 원에 비해서는 약 15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평균 315만1천 원인 것을 감안할 때 우리대학은 약 100만 원이 더 높게 나타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대학은 등록금 수입대비 장학금 지급률에서도 23.03%를 기록해 5,000명 이상 사립대학 중에서 6위를 차지했다. 우리대학은 향후 장학금 지급률을 25% 선까지 끌어올려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을 좀 더 높일 계획이다.

정성봉 총장은 “점차적으로 장학금을 상향조정하고 지급률을 늘리는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우리대학의 장학금 지급 금액 및 지급률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대학 장학금 지급 금액, 왜 늘었나?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평균 315만1천 원으로 전년 294만7천 원보다 6.9% 가량 늘었다. 이는 국가장학금 도입 첫 해인 2012년 213만3천 원에 비해 48%(101만 원)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장학금 지급 금액이 증가한 것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확충 정책과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구조개혁과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책임자를 선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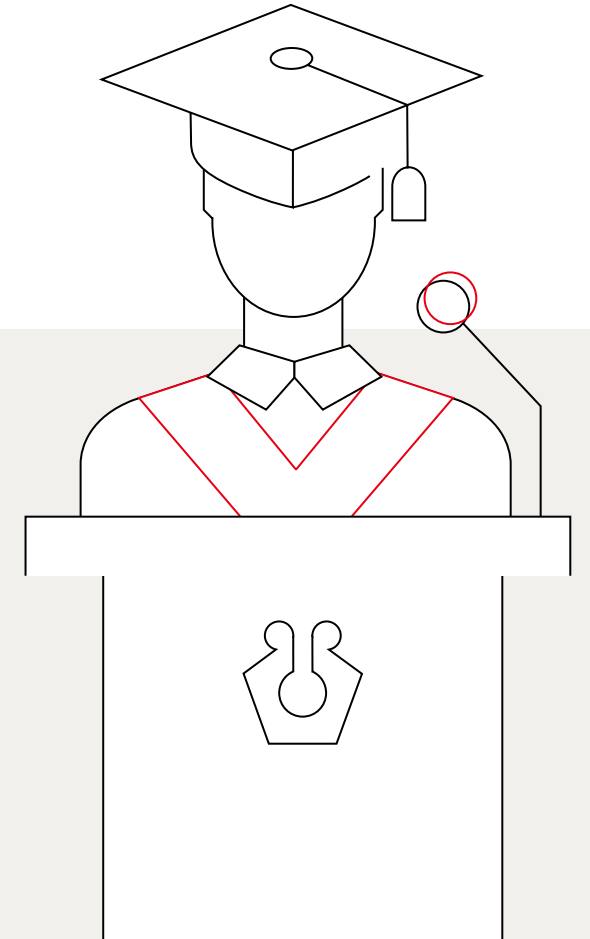
청주대, 신임 총장에 정성봉 청석학원 이사장 선임

학교법인 청석학원은 9월 6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총장에 정성봉 청석학원 이사장을 임명했다. 이사회는 “정성봉 신임 총장이 학내사정에 밝으면서 교육학 박사로 대학의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 능력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는 등 청주대학교가 처한 난국을 타개할 책임자로 판단돼 총장에 선임하게 됐다”고 밝히고, “모든 구성원들은 신임 총장을 중심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경쟁력을 높이는데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성봉 신임 총장은 “앞으로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과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해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학사구조 개편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우리대학은 신임 정성봉 총장이 대학구성원들을 아우르면서 당면과제인 구조개혁과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월 7일부터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될 정성봉 총장은 194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교육부 편수관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장을 맡아왔다.

한편, 학교법인 청석학원은 총장 임명과 함께 신임 이사장으로 20여 년 동안 청석학원 이사직을 수행해온 김조한 이사를 선임했다. 김조한 이사는 초등학교 교사와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사무총장 및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1997년부터 청석학원 이사로 활동해왔다.



신임 정성봉 총장의 포부와 목표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 글로벌 중심대학, 특성화 명문대학을 이루기 위해 신임 정성봉 총장은 먼저 명확한 중장기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학사구조 개편 및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수준의 디자인 명문임을
재확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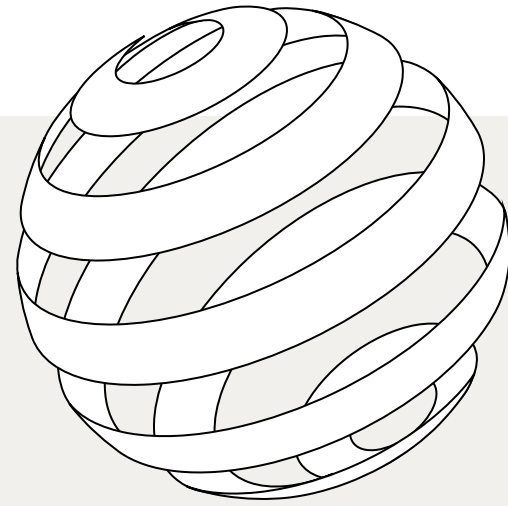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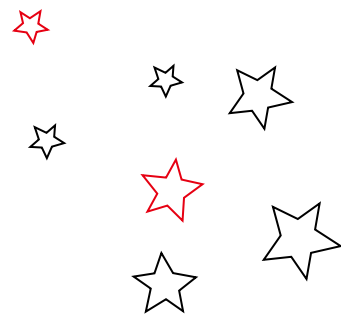
청주대, 세계 디자인 대학 랭킹 아·태권역 10위

우리대학이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인증기관인 독일의 reddot 디자인 어워드가 발표한 2016 세계 디자인 대학 랭킹에서 아·태권역 10위에 올랐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인증기관으로 꼽히는 reddot 디자인 어워드는 1955년부터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에서 주최하고 있다.

우리대학은 해마다 전 세계에서 출품되는 디자인 결과물을 바탕으로 대학 별로 랭킹을 부여하고 있는 reddot 디자인 어워드에서 올해 아·태권역 10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디자인 명문의 위상을 떨치게 됐다. 또한, 우리대학 산업디자인학과는 현재까지 9년 연속 reddot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기도 하다.

올해 또 다른 디자인 인증기관인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전 세계 랭킹 12위에 오르면서 이미 그 저력을 입증한 우리대학은 얼마 전 세계 최고의 디자인, 예술, 미디어 대학교들이 참여하는 연합체인 CUMULU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Art, Design, Media)에 가입하면서 글로벌 명문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대내외에 알린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대학 산업디자인학과는 매년 전공 취업률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산업디자인학과 조성배 학과장은 “정부, 연구소, 대기업, 중소기업과의 성공적인 관·산·학 협력을 통한 교과목을 운영하는 등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이 세계 랭킹 10위에 오르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reddot

세계적인 권위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독일에서 주최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 부문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Communication Design) 부문, 디자인 컨셉(Design Concept) 부문의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수상작은 독일과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는 '레드닷 디자인 뮤지엄'에 전시된다.



진심眞心 오직 학생을 향하다

학생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학,
그래서 학생 모두가 행복한 대학,
준중과 배려로 오직 학생을 섬기는 진심이
학생제일주의를 실천하는 청주대학교의 힘입니다.

08

Support 24

학생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는
청주대학교 24가지 키워드



학생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는
청주대학교 24가지 키워드



스무 살 그대, 위풍당당 청대인으로 피어나라

청춘이 아름다운 것은 꿈을 품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꿈을 응원하는 것은
그 안에 찬란한 순간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가올 찬란한 순간은
이미 청춘의 가슴에서 돌아오고 있음을.

청주대학교 안에서 마음껏 찾고 누리세요.
무엇을 꿈꾸고 만들어가든
청춘, 당신을 끝까지 응원합니다.



01 학문의 본질을 고민하는 수준 높은 교양교육

청석 알레테이아(ALETHEIA)칼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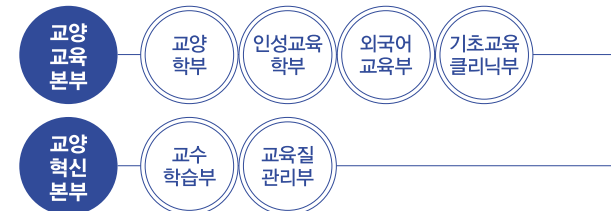
올해 신설된 청석 알레테이아 칼리지는 학생들의 교양교육 강화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총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교양대학입니다. '알레테이아(ALETHEIA)'는 그리스어로 '진리'를 뜻하는 단어로, 그동안 대학교육이 있고 있었던 학문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폭넓게 자신을 만들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의 배움은 기술적인 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청석ALETHEIA 칼리지가 그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석 알레테이아 칼리지
한대균 학장

• 청석 알레테이아 칼리지 조직구성



02 신입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놀라운 규모

청주대학교 기숙사

우암마을, 인터내셔널 빌리지, 예지관, 진원관 등 네 곳으로 나뉘어 조성된 청주대학교 기숙사는 총 수용인원 2,300여 명의 규모를 자랑하며, 입주 학생들에게 내 집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암마을
 - 수용인원: 2인실 1,206명
 - 규모: 지하 1층, 지상 11층 4개 동 / 지상 5층 1개 동
 - 구조: 거실1, 방3, 화장실3, 세면실1, 샤워실1
- 인터내셔널 빌리지
 - 수용인원: 4인실 734명
 - 규모: 지상 10층 1개 동
 - 구조: 방(12평), 개인용 책상, 책꽂이, 옷장, 화장실 및 샤워실, 각 층 휴게실
- 예지관
 - 수용인원: 2인실 202명
 -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1개 동
 - 구조: 방1, 가정식 화장실(화장실+샤워실 일체형)
- 진원관
 - 수용인원: 2인실 164명
 - 규모: 지상 6층 1개 동
 - 구조: 방1, 거실1, 화장실1
- 생활관 내 편의시설
 - 식당, 편의점, 헬스장, 탁구장, 세탁소, 휴게실, 정독실 등



03 입학부터 졸업까지 책임진다

책임지도교수제

책임지도교수제는 학생과 교수를 가족처럼 연계한 우리대학만의 독특한 평생 지도교수 시스템입니다. 입학하는 순간부터 청주대학교 학생들은 자신을 담당하는 책임지도교수와 다양하고 폭넓은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초학력과 학습의욕을 높일 수 있어 향후 취업률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04 학생의 내일을 응원하는 든든한 버팀목

진로 및 취업 트랙 5

청주대학교는 2015년부터 진로 및 취업 지원 트랙을 5가지로 체계화하여 과감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재개발원 취업지원팀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트랙'은 인성을 기반으로 한 청주대 학교만의 독특한 커리어 로드맵입니다.

<인재개발원 진로 및 취업 트랙 5>

1. 공무원·교원 집중 양성 프로그램_청석현(공무원 준비반) / 교원사관학교(교원 임용고시 준비반)
2. 진로·채용 준비 단계별 프로그램_NCS 이해 및 진로설정 /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 캠프 / NCS 기반 면접 캠프
3. 학과(단과대학)·업종별 특화 프로그램_학과 특화 캠프 / 취업 특화 동아리 / 금융기관 캠프 / 언론 캠프
4. 인성·리더십 프로그램_청석브런치강좌 / 저자와의 만남(인문학 특강) / 셀프 리더십
5. 기타 프로그램_기업체(인턴) 체험 / 경력개발상담센터 / Job Round with Lunch



07 꿈과 미래에 대한 명쾌한 조언을 얻다

명사초청 특별강좌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명사초청 특별강좌는 <글로벌 시대의 창조와 도전>이라는 2학점 과목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직접 청주대학교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강연입니다. 학생들이 이 명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한 명사초청 특별강좌에는 지금까지 박근혜 전 삼성생명 부회장, 이원준 롯데백화점 사장 등 청주대학교 출신 대표 동문들을 비롯해 정치인, 문화예술인, 기업 CEO, 정부 고위직 공무원 등 수많은 명사들이 참석해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담아 열띤 강연을 펼쳤습니다.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08 세계 최고 디자인 명문대학과 교류하다

CUMULUS 가입

최근 청주대학교는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예술·미디어 대학들이 모인 연합체인 CUMULU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Art, Design, Media)에 가입했습니다. 기존 회원대학의 추천과 이사회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CUMULUS의 회원이 된 청주대학교는 앞으로 전 세계 디자인 명문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며 디자인 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디자인대학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CUMULU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Art, Design, Media)

1990년 설립된 대학 연합체로, 핀란드 헬싱키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디자인 명문으로 손꼽히는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영국 왕립예술대학, 네덜란드 델프트공과대학, 중국 칭화대학 등이 가입되어 있으며, 국내대학으로는 청주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두 곳만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5 생활 속 최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경험하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1986년, 유명 건축가 김종성 씨의 설계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개관한 바 있는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이 2017년 3월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최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지어질 중앙도서관은 학생들의 면학하고 휴식을 위한 대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총 예산 250억 원 리모델링 사업 총 면적 15,487㎡

장서 보유 수 1,050,000여 권



06 학생 스스로 설계하는 해외탐방 루트

세계도전 장학탐방 프로그램

세계도전 장학탐방 프로그램은 학생이 직접 연구주제를 정해 사전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선정된 팀이 외국의 선진사례를 직접 탐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청주대학교의 대표적인 글로벌 프로그램입니다. 외국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창의력, 추진력,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개인별 최대 200만 원의 활동비는 물론, 교양 3학점을 함께 인정해줍니다.

2015 세계도전 장학탐방 프로그램 수혜자
임상병리학과 3학년 조예인 학생



“저는 세계도전 장학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제약회사와 의약품 개발회사 등을 둘러보고 왔어요. 학과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어요. 또, 해외 취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생각해볼게 된 점도 의미있는 변화죠. 그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니까요.”

09 6대 국책기관과 함께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만든다

오송바이오캠퍼스

지난해 청주대학교는 충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단독 캠퍼스 건물 준공하고 바이오메디컬학과 전체를 이전하는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보건 의료 분야 6대 국책기관과 제약·의료기기 관련 기업, 바이오 연구기관, 교육시설이 모두 모인 산학융합형 단지로, 세계적인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꿈꾸는 충북의 미래가 담긴 곳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중심 연구단지 안에서 전문인력들과 함께 공부하며 바이오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주대학교 학생들은 오송바이오캠퍼스를 통해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6대 국책기관



10 인성이 바로 선 인재를 키우는 런치타임

청석브런치강좌

옛 선조들의 '밥상머리 교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청석브런치강좌'는 인성이 바른 청대인 양성의 시작이자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청주대학교의 철학이 담긴 프로그램입니다. 학교는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피자 등을 제공하고, 외부에서 초빙한 비즈니스 매너강사와 함께 직장생활에 필요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과 지도교수들도 함께 참여해 진로상담 등을 진행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올해 1학기에만 약 1천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했을 정도로 학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11 융복합 특성화와 산학협력 사업의 중심체

6개 특성화 사업단

올해 청주대학교는 비교우위에 있는 융복합 특성화 학과와 산학협력 사업 육성을 위해 6개의 특성화사업단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해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실질적 혁신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에 지원할 예정인 청주대학교는 6개 특성화 사업단과 함께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체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 청주대학교 6개 특성화 사업단

〈학문 분야 융복합 특성화사업〉

1. 공공기관 맞춤형 창의융합인재 양성사업단
2. 지역밀착형 리빙플랫폼 창의디자이너 양성사업단

〈산학협력 중점사업〉

1.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산학협력사업단
2. 빅데이터 기반 도농지역 친환경 재생사업단
3. 디자인 헬스케어 융합가치창출사업단
4. 바이오메디팜 산학융합단



12 공무원의 꿈을 지원하는 고시준비반

청석현



오랜 기간 고시준비반 형태로 운영되어온 '청석현'이 공식기관으로 정식 출범한 것은 지난해 7월입니다. 그간 수많은 공무원을 배출하며 청주대학교의 명예를 빛낸 청석현의 부활은 청주대학교가 중부권 최고 명문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한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연간 8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인 청석현에는 현재 120여 명의 입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학기당 100만 원의 장학금과 개인별 열람실 제공, 방학 중 숙식 및 필수과목 특강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1학년 때부터 경찰공무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석현에 입현했어요. 일찌감치 제 목표를 잡은 것도 좋고, 또 열심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학교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저도 꼭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며 사회에 봉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청석현 입학생
행정학과 2학년
김선중 학생

13 청주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체육공간

석우문화체육관

2013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준공된 석우문화체육관은 총 4,484석의 좌석을 갖춘, 충청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스포츠 콤플렉스로, 대체육관과 피트니스센터, 사무실과 강의실, 무대준비실, VIP룸, 샤워실, 소체육관 등의 시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입학식과 졸업식 등 우리 대학의 주요 행사를 비롯해 국제 수준의 스포츠 경기와 다양한 문화공연, 이벤트 등의 대관이 이어져 우리대학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소설가 알랭 드 보통의 강연회, 청풍기전국유도대회, 국제로봇올림픽아드대회 예선전, 청주시민의 날 기념음악회,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충북 솔라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곳에서 열리고 있어 학생들은 캠퍼스 안에서 국제적 수준의 다양한 이벤트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4 외국에서 일하며 쌓는 글로벌 지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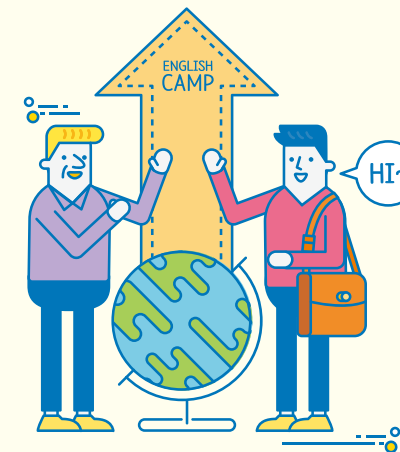
전 세계 30여 개국 164개 해외 자매대학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대학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가운데 해외 인턴십은 학생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대학은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과 교류를 맺고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턴십은 어학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지 자매대학에서 언어 집중교육을 마친 이후에 현지 기업이나 박물관, 교육기관, NGO 등에서 3~4개월 동안 인턴십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어학능력과 국제사회 적응력을 기를 수 있는 매우 값진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15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인다

하계 영어캠프

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는 영어캠프는 영어 단기 집중 코스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좋은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3주간의 토익기숙캠프, 3주간의 원어민 영어집중과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어학연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캠프 기간 중 치러지는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됩니다.



16 학생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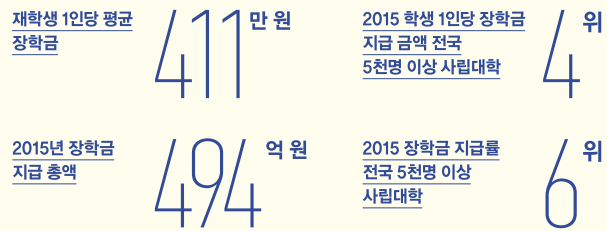
인재개발원



우리대학은 올해 신설된 산학부총장 산하에 산학취·창업본부를 두고, 기존의 취업지원실을 인재개발원으로 승격, 개편하여 전략적인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로전문가의 연구를 토대로 한 '커리어 로드맵'을 개발·구축해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체 사이클을 여러 각도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인문학 교육과 밥상머리 예절교육, 셀프 리더십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
인성교육, 공직양성과정캠프, 학과 취업 특화 프로그램, 집중 취업지원 프로그램, 면접교육, 기업채용설명회, 종합 직무적성 및 인성검사, 취업정보 제공, 취업 관련 캠프, 잡카페 운영 등

꿈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젊음을 아낌없이 지지하고 후원하는 것은 우리대학의 변함없는 신념입니다. 청주대학교는 더 많은 학생이 학문에 집중하며 자신의 꿈을 이뤘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특별장학제도, 국가고시장학, 성적 최우수장학, 청석장학, 동문회장학 등의 교내외 장학금을 비롯하여 자격증취득장학, 영어실력향상장학 등 노력하여 목표를 이뤄내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의 기회를 활짝 열어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500억 원에 가까운 장학금이 재학생들에게 지급되었으며, 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에게도 장학금 혜택이 두루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 전국 4위에 빛나는 학생 1인당 장학금

장학제도



18 세상의 큰 울림이 되는 10만 청대인

동문파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대학은 건학 이래 70여 년 동안 약 10만여 명의 동문을 배출해왔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 청대인 특유의 근성과 열정으로 각자의 자리를 빛내온 이들은 정치 및 공직, 법조, 경제, 금융, 언론, 교육, 대중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며 청주대학교 10만 동문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동문들**
강윤제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전무) 김영국 (KBS 글로벌센터장)
박근희 (전 삼성생명 부회장) 연광철 (성악가,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
유재풍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청주YMCA 이사장) 윤승욱 (신한은행 부행장)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이사)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 사장)
정정순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현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정만순 (전 국기원장) 차천수 (효성건설 PG장)
조민기 (배우,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허영호 (산악인) 등

19 융복합 교육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다

CK-1사업단

우리대학은 2014년 교육부 지방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CK-1사업단(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기반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단에서는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예술적 상상력과 기술적 능력을 겸비한 창의적인 디지털 콘텐츠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 국어국문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신문방송학과 등 5개 학과에서 학생들을 선발해 'C-School'을 구성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학문을 넘나들며 새롭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확장시켜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갑니다. 지난 1학기에는 학생들이 직접 'Black & White Project Show(흑백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전시하는 등 융복합 교육의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5개 학과 학생들이 한 팀으로 모여 토론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했기에 서로의 전공 분야를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순간이 참 좋았고, 학과별로 다양한 생각과 탐구방식이 더해져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또 서로의 작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Black & White Project Show〉 전시 총괄 디렉터 시각디자인학과 4학년 이성욱 학생



20 학생 기업가의 위대한 탄생을 응원하다

학생창업관

학생창업관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업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난 5월 창업교육센터 내에 새롭게 설립되었습니다. 37개 창업동아리에 소속된 회원 240여 명과 재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회의용 테이블과 복사기, 복합기,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PC 등의 비품이 갖춰져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창업활동을 돕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대학은 앞으로 창업문화 조성과 지원 프로그램 강화, 기업가 정신 함양 등 성공창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21 친환경 캠퍼스 안에서 키우는 푸른 꿈

그린캠퍼스 선정

우리대학은 지난 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16 그린캠퍼스에 선정되었습니다. 대학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물과 전기,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절약 방안을 모색하며 교내 건물에 이를 적용해온 우리대학의 노력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대학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4천만 원씩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친환경 교육,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교정 구축 등을 추진할 그린캠퍼스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22 학생과 교수의 경쟁력을 높인다

첨단교육혁신시스템

교수들의 역량 강화와 학생의 지속적인 자기개발 등을 위해 우리대학은 2017년 1월까지 총 7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새로운 첨단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육성과환류체계(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각 수업별로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도출되어 다음 학기에 문제점을 보강할 수 있는 등 맞춤형 학습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학생들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진로 탐색과 설정, 경력 개발, 취업 등 자신의 역량 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23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보물창고

청주대학교 박물관

1967년 개관한 청주대학교 박물관은 충청지역 최초의 박물관으로서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온 소중한 공간입니다. 선사시대 유물부터 민속공예품, 우리대학 역사자료에 이르기까지 총 2,500여 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특히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인쇄한 청주 흥덕사지 발굴작업에 참여하는 등 학술연구에도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통일신라 후기의 비로자나불상 가운데 가장 완벽한 불상으로 평가 받는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23호)', '금강반야경소론찬요'를 다시 풀이한 희귀본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보물 720-2호)'은 청주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24 충청지역 우수기업 탐방 프로젝트

WOW 기업대장정

“2014, 2015년 두 번에 걸쳐 기업대장정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유통공사, (주)오더스 등 충청지역의 강소기업을 방문한 것 말고도 3박 4일 동안 열린 취업캠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취업 특강을 듣고, 조별로 미션을 수행하고, 또 면접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막연했던 취업 준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었습니다.”



WOW기업대장정 지역 우수기업 연수 체험대장정 참가자 경제학과 4학년 김태호

2013년부터 매년 여름방학마다 진행되고 있는 'WOW 기업대장정'은 국토순례와 기업방문을 적절히 혼합한 프로그램입니다. 경제학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이 행사는 취업문제와 지역기업 인력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훌륭한 프로젝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재조명하여 우수기업들을 알리고, 지역 내 취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충청북도 전역을 몇 개의 코스로 나눠 걸어서 기업 탐방을 이어가고, 행사의 마지막 날에는 취업 콘서트도 개최합니다.



17

Department Guide

한눈에 보는 청주대학교 특성화 및 융·복합 파워



18

Department Guide

7개 단과대학 및 2개 학부 소개



28

Entrance Guide

2017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 안내



몰입 沒入
진리를 탐구하다

학문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는 대학. 지성의 너른 광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 본연의 자세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울림이 되는 청주대학교 10만 동문들

한강 이남 최초의 사립대학이라는 명예와 전통 안에서 청대인은 69년이라는 열정의 시간을 씬 없이 달려왔고, 그 에너지는 이제 후배들에게 오롯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대학의 가장 큰 자산은 '청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크고 작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 10만여 동문들이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사회 곳곳을 움직이는 청대인들을 만날 수 있고, 이들은 뛰어난 전문성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든든한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정치, 공직, 법조계 분야

김현수 전 국회의원, 정정순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유재길 청주시 부시장, 박현하 전 대전광역시 정부부시장, 홍종균 전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권태호 전 춘천지검 검사장, 유재풍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등을 비롯한 수많은 청대인들이 국회의원은 물론, 고위직 행정 관료와 법조인 등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활약했던 정정순 동문은 비고시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등을 거쳐 현재 차관급에 해당하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치 및 공직, 법조계를 대표하는 청대인

고임식(한국전력 옥천지사장), 권태호(전 춘천지검장), 김광수(전 충북도의회 의장), 김동수(전 정보통신부 차관, 현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김정희(단양역장), 김태훈(전 LX대한지적공사 부사장), 김현수(전 국회의원, 전 청주시장), 김호영(전 청주세무서장), 김희수(전 괴산군 부군수), 박구병(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 박원태(한국전력 영동지사장), 박현하(전 대전광역시 정부부시장), 오애리(LX대한지적공사 김포지사장), 유병욱(전 청주세무서장), 유재풍(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유재길(청주시 부시장), 이재원(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 정정순(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현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한범덕(전 청주시장), 허경제(전 단양군 부군수), 홍종균(전 한국도로공사 부시장) 등

경제, 금융 분야

해방 이후 최초의 4년제 대학으로 출발했던 '청주 상과대학'의 역사와 전통은 청대인들이 특히 경제 분야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지방대 신화'로 불리며 삼성생명 부회장과 삼성사회공헌위원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박근희 동문을 비롯해, 윤승욱 신한은행 부행장, 차천수 효성건설 PG장, 경청호 전 현대백화점 부회장,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청대인만의 끈기와 열정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을 든든하게 이끌고 있다.

경제, 금융 분야를 대표하는 청대인

강윤제(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전무), 경청호(전 현대백화점그룹 총괄 부회장), 김남수(전 KB국민은행 충청동지역본부장), 김동은(LG화학 대산공장 주재임원 상

무), 김문석(POSCO 상무), 김영진(동일유리 대표이사), 김진태(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전무), 박근희(전 삼성생명 부회장), 배재훈(브릴리언트 대표이사), 윤승욱(신한은행 부행장), 이명식(충청에스엔지 회장), 이원구(남양유업 대표이사), 이원준(롯데쇼핑 대표이사), 이인균(전 신세계그룹 이마트 상품개발본부 부사장), 이재원(전 이수건설 사장), 이종석(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장), 임충희(GS건설 사업운영본부 부사장), 조규승(우리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상무), 조현일(그린광학 대표이사), 차천수(효성그룹 PG장, 진흥기업 대표이사), 한복환(광주은행 상임감사) 등

예술, 체육, 대중문화 분야

배우, 영화감독, 성악가, 도예가, 화가, 무용가, 작가, 산악인, 스포츠 선수까지. 청주대학교에서 남다른 감성을 키운 많은 동문들이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이끌고 있다. 세계적인 성악가 영광철 동문은 현재 서울대 음대 교수로도 활동 중이며, 송일국, 조민기, 김영호 등의 동문들이 TV와 영화에서 중형무진 활약하고 있다. 또한, 제4회 수림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김혜나 동문과 제14회 이효석문학상 수상자인 윤성희 동문 등이 문학계에서 청대인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예술, 체육, 대중문화 분야를 대표하는 청대인

고미영(산악인), 김경식(충북문화재단 이사장, 청주대 교수), 김기중(도예가), 김대희(개그맨), 김영호(배우), 김명호(안무가, 전 청주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김혜나(소설가), 박성호(개그맨), 박용진(영화 '용의주도 미스신' 감독), 송대남(런던 올림픽 유도 90kg 금메달리스트, 유도 남자대표팀 코치), 송일국(배우), 어일선(영화감독, 청주대 교수), 영광철(성악가, 서울대 음대 교수), 유인석(개그맨), 윤성희(소설가), 이동준(배우), 이상기(영화 '무방비도시' 감독), 이승희(도자회화 작가), 이정호(영화 '베스트셀러', '방황하는 칼날' 감독), 전건호(무용가), 정만순(전 국기원 원장), 정용주(영화 '네버엔딩 스토리' 감독), 정지훈(영화 '광해', '최종병기 활' 프로듀서), 조민기(배우, 청주대 교수), 조한철(배우), 한영희(민화작가), 허민(개그우먼), 허영호(산악인) 등

언론 분야

꾸준히 언론 분야로 진출하며 세상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청대인들은 현재 KBS, 현대 HCN, CJB,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등에서 맹활약 중이다. 일선 현장을 뛰는 취재기자부터 국장, 대표이사

에 이르기까지 매체의 성격은 다르지만 청대인의 열정으로 생생한 뉴스와 기사, 사진을 통해 시대를 담아내는 언론인으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언론 분야를 대표하는 청대인

강대관(전 현대HCN방송 대표이사), 김동민(충북일보 편집국장), 김동진(충청일보 기획보도국장), 김영국(KBS 글로벌센터장), 김영상(헤럴드경제 에디터), 민병우(경인방송 사장), 변주연(충청매일 대표), 사광기(세계일보 사장), 송창희(중부매일 뉴미디어국장), 엄경철(충청타임즈 편집국장), 유용진(KBS 청주방송총국 보도국장), 윤용근(불교방송 총괄국장), 이성덕(CJB 청주방송 총주본부장), 임백수(충청투데이 부회장), 임정기(중부매일 편집국장), 임해훈(CJB 기획제작국장), 조철호(동양일보 회장), 최경수(KBS PD) 등

교육, 연구 분야

교육감, 교수, 교사라는 이름으로 한평생 교육자의 길을 걸으며 후학 양성에 최선을 다하는 청대인들 역시 청주대학교의 동문 파워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다. 김영세, 김천호, 유성중, 정인영 동문 등 다수의 교육감을 배출하며 일찌감치 지역의 교육정책 전반을 이끌어 온 우리대학은 이 밖에도 장병집 전 한국교통대 총장을 비롯해 주삼식 성결대학교 총장 등을 배출했으며, 청주대학교 내에 60여 명에 이르는 동문 교수들이 재직하며 남다른 사명과 애정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교육 및 연구 분야를 대표하는 청대인

김영세(전 충북교육감), 김준범(미국 전자공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김준호(전 수원대 총장), 김천호(전 충북교육감), 유성중(전 충북교육감), 이광택(전 청주대 총장), 정인영(전 충북교육감), 주삼식(전 성결대 총장), 장병집(전 한국교통대 총장), 최호택(배재대 교수), 홍득표(인하대 교수), 남기정(청주 청석고 교장, 충북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박원규(전 청주 대성고 교장) 등

먹거리로 중국 식품시장 점령한 사업가



10년 전 한 차례의 사업 실패로 인생의 고비를 맞았던 '채소장수'가 지금 중국에서 인생역전 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있다. 상하이 고급 백화점과 이커 2만여 곳에 먹거리를 납품하고 판매하는 식품기업 '썬프레(鮮富來/Sunfre)'의 장장원 동문이다. 무엇이 피곤 이런 노력인지 보여주는 그의 성공담을 마주하니, 무엇이든 지금보다 더 쫓고 노력하며 살고 싶어진다.

중국을 향한 야심찬 도전,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다

장장원 동문

상해청상식품유한공사(上海淸商食品有限公司) 대표이사
중어중문학과 82학번

얼마 전 출간하신 <실패가 끝은 아니다>를 읽고, 무언가 도전의 불꽃이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강연을 통해 좋은 기운을 전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강연 현장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지난 8월 청주에서도 강연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는지요. 세광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실패란 무엇일까? 비단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될 수 있으면 적게, 강도가 약하게 그 실패란 녀석을 만나면 좋겠지만,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선 성공의 참맛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안목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갔으면 좋을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계는 과연 '팍스 차이나(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시대'로 변화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모두에게 중요한 화두니까요. --- 청주 지역에서 채소사업에 실패하신 후 중국에서 같은 사업 분야로 재기해 크게 성공하셨습니까. 상하이를 중심으로 7개 성의 고급 백화점과 마트 2만여 곳에 먹거리를 납품하는 식품브랜드 '썬프레'를 일구셨는데요, 실패 후 성공에 이르기까지 대표님을 이끌어온 저력은 무엇이었나요? 지금도 저는 2005년 12월 22일, 이 날짜를 늘 기억하고 삽니다. 단돈 1천만 원을 들고 일가족이 모두 상하이로 떠났던 날, 벼랑 끝 절박했던 심정으로 지난 10년을 지내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중국의 먹거리 문화를 배워가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눈에 들어온 채소가 바로 숙주나물과 콩나물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음식에 가장 많이 쓰는 채로이기에 승산이 있었죠.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재도전하자는 심정으로 이름도 '썬프레'를 그대로 썼고, '제품을 팔지 말고 브랜드를 팔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국은 사업성만 있다면 OEM생산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공장 제조업'을 실현하기 위해 브랜드 마케팅에 주력했고,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창조하는 데 힘썼습니다. 또, 먹거리 안전이 선명하지 않았던 중국 사회에 고품질 고가 전략으로 승부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유기농으로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를 설득할 때도, 그 후 백화점에 납품하기 위해 서른 두 차례나 방문할 때도 반드시 진심과 정성은 통한다는 마음이었 습니다. 정말이지 발품처럼 위대한 판시(관계)는 없습니다. ---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표님께는 정말 특별한 의미일 것 같은데요. 대학입시를 앞두고 전공을 선택할 즈음 그때는 대부분 영어공부에만 열을 올리던 시대였는데, 저는 중국어에 더 관심이 가더군요.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 농사를 지으시며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는 와중에도 독자라는 이유로 대만 유학까지 다녀오면서 중국어를 공부했던 것이 제 인생에 마지막 끈이 되어준 셈입니다. 중국은 태어나서 피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곳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제2의 모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으니까요. --- 좁은 지면에 그동안 겪어오신 솔한 난관들, 또 그것을 이겨낸 이야기들을 모두 옮기기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동문님께 선물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를 믿어야 하고,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또 저지르는 자의 몫이죠. 실패를 두려워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세상에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촌놈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여야만 비로소 세상은 나를 인정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 썬프레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꼭 이루고 싶으신 꿈이 있으신가요. 썬프레는 중국에서 가장 안전한 먹거리를 자기 브랜드로 가장 비싸게 팔아 성공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조금 더 시장을 확장한 후 무공장 제조업의 방식으로 동남아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종합 식품회사로서 영역을 넓혀나가면서 농업 바이오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썬프레 코리아가 올해 10월 1일 출범했으니, 이제는 한국 고객들도 가까운 백화점과 마트에서 저희 제품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반갑게 웃어주세요. ⑤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직지 2.0 라운드 테이블' 사회자



직지(直指)의 위대한 발명을 기리는 축제,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제1회 직지코리아의 주요 행사 가운데 '직지상 2.0 라운드 테이블' 사회자로 나선 신문방송학과 이두원 교수는 '기록의 방식과 기술을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앞으로 청주시가 유네스코의 기록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경청으로 소통하는 자,
기록유산의
위대함을 전하다

이두원 교수
신문방송학과

지난 9월 초 청주에서 열린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은 가을을 여는 아주 멋진 행사였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직지상 2.0 라운드 테이블' 사회자로 이 축제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은 청주직지축제와 유네스코 직지상을 통합해 '직지, 세상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직지상 2.0 라운드 테이블은 그동안 직지상을 수상한 기관의 대표들과 유네스코 대표단이 모여 직지상의 발전 방향과 수상 기관의 협력체계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사회자로 참여해 역대 직지상 수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록 방식과 기술을 전 세계가 공유하기 위한 교육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각국의 대표들도 모두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라 튀 유네스코 사무총장보는 유네스코의 기록 훈련 프로그램을 청주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바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기록문화로서 직지는 우리에게, 또 세계 역사문화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고려금속활자의 발명은 인류문명사적 차원에서 위대한 미디어 혁명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전파하기 위한 신 매체의 탄생은 인간의 삶과 소통방식을 바꾸어 놓는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직지는 우리민족의 문화적 우수성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인류문명사에 미친 영향을 스스로 재조명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전 세계에서 모인 기록유산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역사 자료의 보존이나 아카이빙 기술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록유산은 정보의 기록을 담고 있는 매개체를 의미합니다. 그림, 지도, 음악, 필사본, 책, 신문, 포스터, 아날로그나 디지털 형식의 오디오와 비디오 등이 모두 기록유산이지요. 인류의 기록유산이 약탈되고, 파괴되는 것은 인류문화사의 한 부분이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유네스코는 1992년 Memory of World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계기록유산은 인류 전체의 유산이기에 함께 보존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지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기록문화유산의 자료 보존 방식이나 아카이빙 기술 분야에도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기록유산 종사자들이 청주에 와서 유네스코 기록유산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신문방송학, 문화콘텐츠학, 문헌정보학, 역사문화학 등을 전공하는 우리대학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가는 과정에서 한번쯤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지요. --- 교수님의 연구 키워드가 '소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학생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수님만의 소통철학이 있으시다면요? 기초학제 관점에서 사회적 소통현상을 연구해왔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선 관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상대의 입장과 시각을 고려하지 못할 때 불통이 일어나니까요. 수업시간에도 학생들에게 경청과 공감능력에 대해 강조합니다. 한자의 '들을 청(聽)자'를 살펴보면 경청이 귀와 눈과 마음으로 듣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경청과 공감능력을 개발하면 상대의 눈빛만 보아도 느낌을 알 수 있죠. 역설적이지만 말이 너무 많으면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의 비언어나 준언어적 의미를 잘 읽어내는 습관이 중요하죠. 소통은 공놀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공이 메시지라면, 던지는 사람이 발신자, 받는 사람이 수신자이지요. 공놀이를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공놀이를 하고자 하는 의사와 동기가 있어야죠.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공을 던지면 상대는 공에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놀이의 '재미'를 보여주면서 초대하는 것이 필요해요. 공놀이를 하면서도 혼자 공을 오래 갖고 있거나 너무 세게 던지면 문제가 발생하죠. 상대가 공놀이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는 기다리는 인내와 여유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소통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소통 과정에서 경험하는 공감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소통문화가 널리 퍼지고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①

자전거로 3700km 러시아 대륙 횡단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저마다 꿈의 샘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 동분서주했을 그 계절에 배건주 학생은 러시아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돌아왔다. 자전거 하나로 3,700km를 횡단하며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진짜 '나'였다. 여행을 통해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마주할 자신감을 얻었으니, 이제 꿈을 펼쳐 보이기만 하면 되는 강한 젊음이 되었다.

나만의 속도로 달린 길 위에서 진짜 나를 마주하다

배건주 학생

자전거로 러시아 대륙 횡단한
경영학과 3학년

한 달 넘게 러시아 동남부를 둘러보고 왔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자전거로. 대단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된 여행이었나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 해냈더라고요. KT&G 마케팅 스쿨에서 알게 된 친구(충북대 서예진)가 노어노문학을 전공하는데, 자전거로 러시아를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SNS를 통해서 함께 떠날 친구들을 모았고, 네 명이 팀을 이뤄 도전하게 됐습니다. 동해항에서 배로 하루 걸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순간,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러시아라는 거대한 대륙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마음의 거리는 한참 멀었었으니까요. --- 유라시아 대륙 특유의 풍광 속에서 경험한 자전거 여행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내가 굴리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자전거를 타고 끌고 했을 텐데요. 자동차나 기차를 타면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자전거는 내 속도로 천천히 감상하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취미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순간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여행이었어요. 친구들도 그런 점을 배려해주었고요.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를 거점으로 삼아 들었는데, 3,700km 정도의 거리였어요. 하루에 100km씩, 꼬박 8시간 정도를 달렸더라고요. 덕분에 체중이 5kg이나 빠졌어요. 낮엔 햇빛이 정말 강렬했고, 밤엔 10도가 겨우 넘는 정도로 일교차가 너무 심해 비박(야영)을 자주 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껏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목마름도 찾아왔고, 허벅지에 쥐도 나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발구름이 인식되면 고통이 엄습해오는데, 그땐 정말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최고의 난관은 끝없이 이어진 오르막길이었죠. 40일 동안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 친구들은 어느새 길 위의 동지가 되어 있었어요. 동네마다 작은 마가진(가게)이 있어서 맥주 한잔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하루 땀을 식히던 저녁시간은 아주 달콤했죠. 이번 여행은 그런 친구들이 곁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그만큼 기억에 남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하바롭스크에서 이르쿠츠크 가는 길에 '울란우데'라는 도시에 잠깐 들렀었는데,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끝없는 초원을 바라보면서 몽골을 꿈꾸게 한 곳이죠. 러시아란 나라, 정말 넓구나... 이런 말이 절로 나오기도 하고요. 바이칼 호수는 차라리 바다였어요. 해외로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겸손해지잖아요. 러시아에서는 또 다른 겸손함을 느꼈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건강한 몸에도 새삼 감사해졌고요. 그리고, '거주등록제도' 사건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러시아를 여행할 땐, 무비자로 7일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머물게 되면 거주등록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다행히 6일째 되던 날 길에서 우연히 만난 고려인 아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차에 알게 되어서 급히 신고를 하고 불법체류자 신세를 면했어요. 고려인을 만난 것도 반가운데 큰 도움까지 주신 터라 시장에서 닭을 사서 함께 삼계탕을 만들어 먹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 그렇게 진한 경험들로 내면을 채웠으니 달라진 것들, 달라 보이는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목적지를 100km 정도 남겨 두고 한 친구의 자전거 바퀴가 터져버렸어요. 중간중간 수리하면서 무리해 끌고 왔는데, 결국 그 친구는 기차를 타고 종착지에서 다시 만나게 됐죠. 처음 출발했을 때, 네 명 모두 완주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을 했는데, 결국 해냈다는 생각에 안에서 뜨거움 같은 것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을 여행 중에 여럿 만났어요. 또래 친구들인데, 자전거로 유라시아를 횡단해 프랑스까지 갈 거라고 하더군요. 역시 배울 게 많았던 여행이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 오르막을 오르면서 한국 가면 뭐든 잘할 수 있겠다고 내내 중얼거렸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 생각을 했대요. 나 자신을 이겨냈으니 이제 무슨 일이든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요. 졸업하면 광고기획이나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싶은데, 러시아에서의 경험들이 제 젊은 날 튼튼한 뼈와 근육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①



가을 색이
이토록 깊은 까닭은

깊은 하늘은 호수가 비추어주고
바람이 지나는 길은 풀들이 손 흔들어주고
친구의 웃음은 나의 웃음으로 받아주고.

가을 안에서
따스한 마음이 나를 일으켜주네,
사랑하는 온도가 색을 채워주네.

그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
더 충만해지리.
더 깊어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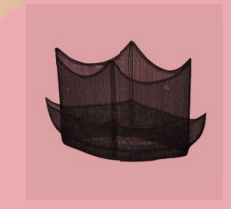
소통 疏通

오늘을 전하다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의 위상을 넘어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중심대학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청주대학교의 도전과 혁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2

단신뉴스
청주대 박물관,
선비의 일상을 엿보다 특별전 개최 외



44

인물뉴스
정초시 교수,
충북연구원장 연임 외



46

명사들과의 만남
이승훈 청주시장
명사특강 외



청주대 박물관, '선비의 일상을 엿보다' 특별전 개최



청주대학교 박물관이 개관 49주년을 기념해 '선비의 일상을 엿보다'라는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했다. 9월 6일부터 시작된 전시는 오는 12월 16일까지 박물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선비의 차림새, 학문세계, 사랑방, 풍류, 봉제사접빈객 등 5개의 주제로 꾸며졌다. '선비의 차림새'는 갓, 정자관, 유관 등 의관유물과 수염빗 등 선비들이 미용을 위해 사용했던

재미있는 소품들이 전시되었고, '선비의 학문세계'는 자치통감각동 등 서채류와 선비의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는 지도류가, '사랑방' 코너는 문방사우(文房四友)를 비롯한 책장과 문장 등 선비들의 대표적인 도구와 소품이 전시됐다. 또한, '풍류'관에는 선비들이 여가를 보냈던 약기류와 오락도구 등이 전시되었으며, '봉제사접빈객'에서는 제사를 올리고 손님을 맞는 것을 중요한 의무로 여겼던 선비의 삶을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김동하 박물관장은 "이번 전시회는 청풍명월의 고장이자 선비의 고장인 청주의 정체성을 되살린다는 취지로 마련했다"며, "많은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찾아 선비의 멋과 여유를 느끼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준비위원회 확대 구성



우리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위해 학내 전 구성원을 아우르는 대학구조개혁평가위원회를 확대, 구성했다. 우리대학은 최근까지 주관부서 주축으로 운영하던 대학구조개혁평가위원회를 학내 전 실무부서와 총학생회,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번 확대, 구성된 위원회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맞춤형 컨설팅과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해 10월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설립자 청암·석정 선생 추도식 엄수



학교법인 청석학원의 설립자인 청암 김원근 선생(1886~1965)과 석정 김영근 선생(1888~1976)의 추도식이 현양사협회 주관으로 10월 10일 오후 2시 엄수됐다. 이날 추도식에는 청석학원 김윤배 이사 등 설립자 유족과 청석학원 김조한 이사장, 우리대학 정성봉 총장, 학원 내 각급 학교 동문, 재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엄수됐다. 추도식은 설립자 약력보고와 헌화 및 분향, 추도사, 송가합창, 일반분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추도식 후에는 우암산 청암 선생의 묘소와 무모산 석정 선생의 묘소 참배가 이어졌다.

청주대-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 협약 체결



우리대학과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이 교육 및 연구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10월 12일 우리대학에서 첨단 보건 의료 지원관리 분야에 대한 긴밀한 상호협력과 교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기관 상호간의 협력체제 확립 ▲산업 및 연구 개발에 대한 협의 ▲대학교육 및 교재개발 참여 ▲현장실습·연수·위탁교육·연구 및 취업 협조 ▲각종 학술 및 기술정보의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축구부, U리그 왕중왕전 진출



우리대학이 대학축구의 절대 강자를 가리는 'U리그'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3월부터 최근까지 권역별로 열린 '2016 인천국제공항 U리그' 정규 리그에서 고려대, 영남대 등 강호들과 함께 왕중왕전에 진출한 우리대학 축구부는 3권역에서 치열한 혈투를 펼친 끝에 아주대에 이어 2위로 32팀이 출전하는 왕중왕전 진출권을 따냈다. 'U리그'는 리그제 확립을 통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등 대학 축구 발전과 정상화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올해는 78개팀이 참가해 치열한 승부를 벌인 끝에 32개팀이 최종 결정됐다.

오송산학융합지구, 3년 연속 우수지구 선정



충북 오송산학융합지구가 전국 10개 산학융합지구 중 3년 연속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TA)이 2011년부터 조성된 전국 10개 산학융합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청주 오송에 위치한 충북산학융합본부는 산학융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대학을 포함한 3개 대학과 함께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우수한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기업연구관에는 화장품 분야 15개 기업 등 모두 48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 기업은 '산학연 협업체'를 구성해 산학연 협력 기술교류 및 상호공동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바이오 관련 학과를 한 곳에 집중시켜 미래 한국의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BT(Bio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오송바이오캠퍼스에는 우리대학(바이오메디컬학과)과 충북대(약학과, 제약학과), 충북도립대(바이오생명약학과) 소속 30여 명의 교수진이 바이오 기업과 함께 하며 산학융합R&D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충북산학융합본부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이끌고 있다.

동아리연합회, 교내 환경미화 봉사활동



우리대학 동아리연합회 회원 80여 명이 9월 29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학내에서 담배꽂이 등을 줍는 등 청소 활동을 실시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내 청소 등 기초질서 확립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교내 봉사에는 광고동아리 '파인애플', 봉사동아리 '라운하제', 공연동아리 '아랑페즈' 등 10개 동아리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정진주 학생처장과 직원 등도 함께 참여해 힘을 보탤었다.

고위관리자과정 제57기 입학식 개최



우리대학 사회복지·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제57기 입학식이 9월 20일 고위관리자과정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입학식에는 정성봉 총장과 김진홍 고위관리자과정 총동문회 회장, 학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 사, 축사, 재학생 및 신입생 상호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성봉 총장은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진취적인 용기와 자세가 오늘날 지역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청주대학교는 전력을 다해 여러분의 성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입학식 개최



우리대학이 9월 28일 본관 청석홀에서 정성봉 총장을 비롯한 한국어 강사와 신입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유학생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입학식은 중국, 베트남 등 4개국의 외국인 유학생 18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학사보고, 환영사, 학생선서, 학교배지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수학과정별로 본 입학생 현황은 한국어교육센터 신입생 92명, 학부 신·편입생 57명, 대학원 석·박사과정 40명 등이다. 유학생 대표로 나선 강정레이(중국) 학생은 "학문과 인격도야에 매진하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등 한국 유학의 본보기가 되겠다"고 선서했다.

영화학과-이화여대 공연예술대학원 협약 체결



우리대학 예술대학 영화학과와 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영상음악전공이 상호교류 협력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대학 영화학과와 이화여대 특수대학원 공연예술대학원 영상음악전공은 9월 10일 이화여대에서 전문인력 양성 상호교류 협력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대학은 영화학과 전 학위과정에 이화여대 공연예술대학은 영화학과 영화제작에 필요한 음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사운드 관련 스튜디오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교수상호 교환 및 강의를 교류하기로 했다.

2016년 9월 ~ 10월

2016. 9. 21

창조경제와 글로벌 인재상

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 청주시장이 9월 21일 우리 대학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강연자로 나서 학생들에게 “꿈이 없는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만 꿈이 있으면 좌절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마라톤과 같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꿈”이라고도 덧붙였다. ‘창조경제와 글로벌 인재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이승훈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의

에너지인 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꿈과 함께 창조경제적인 마인드, 노력, 발상의 전환 등이 변화에 필요한 인재상”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서울대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그간 중소기업청 차장,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충청북도 정부부지사 등을 두루 역임했다.

2016. 9. 28

도전

차천수
진흥기업 대표이사 겸
효성그룹 건설PG장



우리대학 출신의 차천수 진흥건설 대표이사가 9월 28일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를 열어 학생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차천수 대표는 “인생은 도전의 연속으로 열정에 갖고 매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하며, “본인이 소속된 가정이나 직장, 국가에 대한 희생정신을 통한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전’이라는 주제로 이어진 이날의 강연에서 차천수 대표는 “현재는 집과 학교라는 보호막

이 있지만 졸업하면 총알이 빔발치는 전쟁터 같은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며 “사회에서 패배자로 낙인 찍히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 있을 때 열심히 준비하면서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습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히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차천수 진흥기업 대표이사는 우리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LG건설 상무이사, GS건설 건축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현재 진흥기업 대표이사 겸 효성그룹 건설PG장을 맡고 있다.

2016. 10. 5

글로벌 시대의 도전과 창업

오건택
한국기술벤처재단 사무총장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한국기술벤처재단의 오건택 사무총장이 10월 5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학생들을 만났다. 오건택 사무총장은 명사초청 특별강좌를 통해 학생들에게 “일상적이고 익숙한 것과 결별한 뒤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기업이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서 앞서가기 위

서는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대의 도전과 창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오건택 사무총장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변화를 시키려면 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을 감수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면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고 말하며, “나만의 유일무이한 패러다임으로 거듭날 때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건택 사무총장은 중앙대를 졸업한 뒤 KIST 연구정보실, 홍보협력실, 경영지원본부 등을 거쳐 현재 한국기술벤처재단을 이끌고 있다.

2016. 10. 12

끝없는 도전과 응전으로 나만의 세계에 우뚝 서기

박성태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박성태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가 10월 12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강연자로 나서 “대학생활을 내 인생 최대의 성공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며 학생들을 만났다. 박성태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자체가 삶의 의욕과 활력을 불어넣은 계기가 된다”고 덧붙이며 긍정의 힘을 강조했다. ‘끝없는

는 도전과 응전으로 나만의 세계에 우뚝 서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박성태 대표이사는 “그동안의 실패는 깨닫기 있고, 실현 가능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한 뒤 간절하고 절실한 꿈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표는 모두 버리고 진정한 내 인생을 위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태 대표이사는 연세대를 졸업한 뒤 서울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 머니투데이 경영기획실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빠딱한 광대>, <서울 서울 서울>, <미친 교수의 헬 수업> 등이 있다.

청주대학교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 세계 수준의 글로벌 명문대학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청주대학교의 발전기금 조성사업은 기부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조금씩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대학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청주대학교가 지역사회의 꿈을 아우르는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청주대학교의 내일을 위한 기부 및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금의 종류 및 기부 방법

장학기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주대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연구지원기금
청주대학교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교수들의 학술연구 지원과 해외파견, 논문 저술 활동, 세미나 개최 등의 국내외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도서기금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의 도서 구입 및 학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기금
청주대학교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기자재 구입을 비롯한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지정기금
기부자 본인이 특정 학과나 단과대학, 대학원, 연구소 등을 직접 지정하여 기탁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일반기금
기부자가 기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학에 위임하는 것으로, 청주대학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약정방법
On-line 약정
청주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give.cju.ac.kr>)를 통해 약정내용을 직접 입력하신 후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Off-line 약정
청주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give.cju.ac.kr>)에서 약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동봉된 약정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신 후 대외협력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 모두 이용 가능)

전화 약정
청주대학교 대외협력팀(043-229-8012)으로 전화해서 직원과 직접 통화하여 약정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납부 방법
무통장 입금
기부자가 발전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11-010540
(예금주: 청주대학교 발전기금위원회)

CMS
약정서에 기부자의 계좌와 이체 희망일 등을 기재해 주시면 매월 대학발전기금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급여공제
기부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청주대학교 교직원인 경우에만 가능)

현물 기부
현금 이외의 자산도 양도 가능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합니다.
(주식과 채권 등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기자재 등의 유형 고정 자산/ 로열티 수령, 저작권 등의 권리 및 보험 등)

후원의 집 안내

가입대상
청주대학교의 발전에 동참하고, 사회공헌활동의 일부인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방법
청주대학교 발전을 위해 후원을 원하시는 업체는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give.cju.ac.kr>)에서 '후원의 집 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시거나 파일함 안에 동봉된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신 후 이메일 또는 Fax를 통해 대외협력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 모두 이용 가능)

- 가입혜택**
- ① 소득세 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② 청주대학교 후원의 집 현판(스티커)을 부착해 드립니다.
 - ③ 각종 학교행사 시 후원의 집 이용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 ④ 홈페이지, SNS, 학교신문, 소식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청주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가족의 이용을 장려합니다.
 - ⑤ 각종 학교 인쇄물 발송 및 기념품 지급 등의 혜택을 드립니다.

발전기금 및 후원의 집 문의
청주대학교 대외협력팀
(2850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TEL 043-229-8012
FAX 043-229-8015
E-mail 00121@cju.ac.kr



인류 최초 3극점 7대륙 최고봉 등정
허영호 (청주대 85학번)

삼성전자 디자인그룹 전무
강윤제 (청주대 87학번)

한국인 최초 세계 50대 성악가
연광철 (청주대 84학번)

세상에 파란을 일으켜라

세계를 향한 당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청주대학교는 세상에 파란을 일으킬
당신을 기다립니다.